

초등학교 금융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이 소 연**

【요약문】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색하여, 초등학교 금융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의 금융교육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둘째, 돈의 개념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합리적 소비와 용돈 관리를 학습하도록 하여, 내용 제시 순서의 체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저축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소비 관련 내용에 편중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 제시의 비체계성과 소비에 치우친 내용 구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에 돈의 개념 및 역할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성취기준을 추가하고, ‘저축과 소비’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련 성취기준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금융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금융교육 실행의 용이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였다. 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학년별로 세분화된 금융교육 기준 마련하고, 시수별·주제별로 금융교육 기준을 어떻게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는지 그 예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금융교육, 초등 금융교육, 학교 금융교육, 금융 이해력, 2022 개정 교육과정

* 2024학년도 전주교육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부교수(flysy3@jnue.kr).

I. 서론

금융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때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학교가 금융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박형준, 2017; 최윤정, 2018; 한진수, 2017; OECD, 2014). 그 배경에는 금융 이해력(financial literacy)이 가정의 경제적 배경 및 교육 배경과 관련 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고학력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의 금융 이해력 수준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Amagir, A. et al., 2020; Novitasari, D. et al., 2021). OECD가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금융 이해력 영역 최신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3년마다 시행되는 PISA는 국가 간 비교가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만큼, 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집 과정과 시행 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한다. 20개국에 참여한 PISA 2022 금융 이해력 평가의 결과 보고서가 2024년에 발간되었는데, OECD 국가를 기준¹⁾으로 할 때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점수는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87점 더 낮았다(OECD, 2024, p.23).

학교는 금융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양질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금융문맹의 악순환을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는 금융교육을 지역 사회로 확장하는 허브로서의 잠재성도 가지고 있다(OECD, 2014, pp.17-18). 따라서 금융교육 논의에서 학교 금융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탐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금융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일찍부터 논의되어 온 바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에 금융교육이 명시적으로 제시됨으로써 논의의 결실을 이루었다. 과목 수와 과목별 수업 시수가 고정된 국가 교육과정의 특성 상 학습 요소 하나를 추가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고려하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한 단원이 금융교육을 위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가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융합 선택 과목으로 ‘금융과 경제생활’이 신설되어 금융교육은 단기간에 독립 과목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금융교

1) OECD 국가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는 498점이다.

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이는 분명 금융교육 관련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금융교육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5년에 이미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금융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권고하였다(OECD, 2005). 지금의 청소년들은 이전 세대에 비해 평생에 걸쳐 금융 생활을 영위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생동안 더 많은 재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어린 나이부터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간편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다. 금융 환경의 복잡성과 끊임없는 변화, 인구 통계적 변화를 포함하는 다양한 사회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금융 역량은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습관, 태도 및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일찍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OECD, 2014, pp.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의 시작인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안을 탐색하여 향후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

2022년 12월에 고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3월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의 통합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기에, 국어와 수학을 제외한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본격 시행은 2025년부터이다.

<표 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급·학년별 시행 시기

시행 시기	학교급 및 학년
2024년 3월 1일	초등학교 1, 2학년
2025년 3월 1일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2026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2027년 3월 1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료: 교육부(2022a)

1. 교과 교육과정

1) 초등학교

2022 개정 교과 교육과정에서 금융 관련 교육(이하 금융교육)은 주로 ‘사회과’와 ‘실과(기술·가정)’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므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사회’ 과목과 ‘실과(초등학교)/기술·가정(중학교)’ 과목을 배우게 된다.

초등학교 ‘사회’ 과목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내 49개 성취기준 중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항목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3~4학년에 2개의 성취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참조).

<표 2> 2022 개정 초등학교 ‘사회’ 교육과정 중 금융 관련 성취기준

구분	성취기준
직접 관련	없음
간접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사07-01]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이해하고, 경제활동에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을 탐색한다. · [4사07-02] 생산과 소비 활동을 파악하고 인적·물적 교류의 사례를 통해 각 지역 및 사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탐색한다.

자료: 교육부(2022b), p. 25.

[4사07-01]에서 다루고 있는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4사07-02]에서 다루고 있는 ‘합리적 소비’는 금융교육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용이다. 그러나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은 경제 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지식으로, 합리적 소비는 경제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오랫동안 다루어왔던 내용 요소이다. 따라서 해당 성취기준이 금융 생활과 금융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줄 수는 있으나, 이것의 궁극적 목적이 금융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교육은 ‘실과/기술·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초등학교 ‘실과’ 과목에서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취기준은 39개 중 1개에 불

과하다(<표 3> 참조).

<표 3> 2022 개정 초등학교 ‘실과’ 교육과정 중 금융 관련 성취기준

구분	성취기준
직접 관련	· [6실02-01] 시간이나 용돈과 같은 생활자원이 제한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생활자원의 사용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탐색한다.

자료: 교육부(2022c), p. 13.

[6실02-01]은 생활자원의 관리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용돈이라는 소재를 통해 학생들이 생활자원 관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용돈 관리에만 초점을 맞춘 성취기준은 아니지만, 금융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지출, 예산 관리 등에 대한 학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교육과의 관련성이 높다.

2) 중학교

다음으로 중학교 ‘사회’ 과목을 살펴보면,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취기준은 1개이며,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내용까지 범위를 확장하면 3개의 성취기준을 더 확인할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2022 개정 중학교 ‘사회’ 교육과정 중 금융 관련 성취기준

학년	성취기준
직접 관련	· [9사(일사)08-02] 일생 동안 이루어지는 경제생활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을 계획한다.
간접 영향	· [9사(일사)08-01] 경제 생활에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 방안을 탐색한다. · [9사(일사)10-02] 물가 변동과 실업의 사례를 탐색하고 물가 변동과 실업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다. · [9사(일사)10-03] 세계화 시대에 국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환율 변동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자료: 교육부(2022b), pp. 63-64.

[9사(일사)08-02]는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제시된 성취기준이며,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생활, 자산 관리, 신용 관리’ 등 금융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9사(일사)08-01]의 ‘합리적 선택’, [9사(일사)10-02]의 ‘물가 변동과 실업의 영향’, [9사(일사)10-03]의 ‘환율 변동의 영향’ 또한 금융교육의 영역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내용이나, 초등학교급과 마찬가지로 이는 경제 현상의 이해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금융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9사(일사)10-02], [9사(일사)10-03]의 경우, 거시 경제 요인이 금융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금융교육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 과목에서의 금융교육은 3개의 성취기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2022 개정 중학교 ‘기술·가정’ 교육과정 중 금융 관련 성취기준

구분	성취기준
직접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기가02-11] 급변하는 소비환경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소비자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에 활용한다. · [9기가02-12]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소비자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한다. · [9기가02-13] 책임 있는 소비자로서 소비자의 권리와 역할을 인식하고, 소비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와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소비생활에 적용한다.

자료: 교육부(2022c), p. 23.

[9기가02-11]~[9기가02-13]은 합리적인 소비생활 실천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성취기준이며, 초등학교 ‘실과’와 마찬가지로 금융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지출, 예산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학습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과목의 주된 관심이 주요 생활자원 관리 역량 함양에 있는 만큼, 학습 내용이 소비생활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고등학교

초등학교나 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을 통해 금융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금융교육만을 위한 독립 과목도 신설되었다(<표 6> 참조).

<표 6> 2022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금융교육 관련 과목

구분	과목
단독 과목	· 사회과 융합 선택 과목 ‘금융과 경제생활’ - ‘행복하고 안전한 금융 생활/수입과 지출/저축과 투자/신용과 위험 관리’의 4개 단원으로 구성
과목 내 단원 편성	· 기술·가정과 융합 선택 과목 ‘생애 설계와 자립’ - ‘(2) 경제적 자립’ 단원
과목 내 관련 성취기준 제시	· 수학과 진로 선택 과목 ‘경제 수학’
	· 사회과 공통 과목 ‘통합사회’
	· 기술·가정과 일반 선택 과목 ‘기술·가정’
	· 교양과 융합 선택 과목 ‘인간과 경제생활’

고등학교 사회과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은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개설되었다. 이로써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선택 과목이기에 일부 학생들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기술·가정과 융합 선택 과목 ‘생애 설계와 자립’에서도 금융 관련 내용을 한 단원을 편성하여 금융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수학과 진로 선택 과목 ‘경제 수학’, 기술·가정과 일반 선택 과목 ‘기술·가정’, 교양과 융합 선택 과목 ‘인간과 경제생활’에서는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과목 역시 선택 과목이라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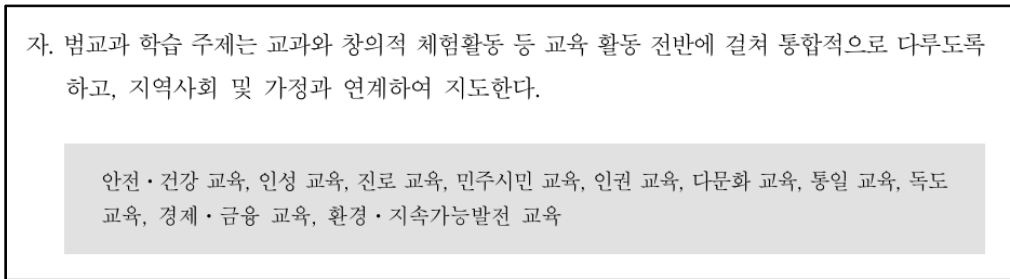
다행스러운 점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인 ‘통합사회’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성취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합사회’의 금융 관련 성취기준은 중학교 ‘사회’에서 학습한 ‘생애 주기에 따른 경제생활의 특징과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자산 및 신용 관리 방안’을 기반으로 하여 ‘자산 관리의 원칙과 경제적·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심화²⁾하였다.

2) [10통사2-03-03] 금융 자산의 특징과 자산 관리의 원칙을 토대로 금융 생활을 설계하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금융과 관련한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2. 범교과 학습주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경제·금융 교육’을 범교과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22 개정 교육과정 문서 내 범교과 학습 주제



자료: 교육부(2022d), p. 15.

범교과 학습 주제는 학습의 적합성 및 효과성을 높이려는 목적과 관련이 있다. 기존 교육과정이 교과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학교에서 교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특정 주제나 영역, 문제 등을 중심으로 여러 교과 지식을 엮어 통합적으로 배워보자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를 여러 교과에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범교과 학습 주제의 목록만 제시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교사 또는 학교가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범교과 학습 주제를 중심축으로 하여 여러 교과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다(이림, 2024, pp.4, 10).

이러한 제시 방식은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하여 학교 현장에서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 교육의 질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며, 범교과 학습 주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과정 체제를 고려하면, 범교과 학습 주제로서의 경제·금융 교육은 교과 교육과정을 통한 금융교육에 비해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Ⅲ. 교육과정을 통해 본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

학교 금융교육의 발전 측면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큰 의미가 있다. 금융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 과목이 편성되어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초등학교급으로 논의를 한정한다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아 보인다.

1. 교과 교육과정 내 교육 시간의 절대적 부족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단연 교육 시간의 절대적 부족이다. 현재의 교육과정 내에서 금융교육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급은 고등학교이다. 선택 과목 체제로 인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과목 편성에 여유가 생겼고, 이는 여러 교과에서 금융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해진 과목과 정해진 시수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기에 금융교육을 위해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의 초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금융교육을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해 돈을 벌고, 쓰고, 모으고, 불리는 모든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4년의 시간 동안 학생들이 경험하게 되는 명시적인 금융교육은 실과 과목에서 이루어지는 2시간 내외의 ‘용돈 관리’가 전부이며, 이마저도 다양한 생활자원 중 하나로 용돈을 언급할 뿐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으나, 오히려 이전 교육과정에서 더 많은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교육 중핵 교과인 사회과를 살펴보면, 1차 교육과정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는 저축과 절약을 강조하는 사회 풍조를 반영하여 초등학교 사회 과목에서 ‘용돈, 소비, 저축, 금융기관’ 등의 내용 요소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6차 교육과정부터는 학습의 중점이 합리적 소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동하였을 뿐, 다루는 내용 요소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박영석, 2024; 이소연, 2018).

사회 과목에서 금융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된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이며, 학습 내용 감축을 위해 성취기준 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금융 관련 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 개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금융 관련 내용 요소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소비와 합리적 선택에서 간접적으로 다룰 여지만 남게 되었다. 실과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6차 교육과정 이후로 금융 관련 내용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다루는 내용은 용돈 관리나 소비생활에서의 자원관리 차원으로 한정되었다(박영석, 2024, pp.81, 84). 교육의 적시성 측면에서 금융교육의 시작은 빠를수록 좋다는 전문가들의 권고를 떠올린다면, 초등학교의 이러한 상황은 금융교육의 중요한 현안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학교 금융교육 확대 논의는 학생의 발달 단계와 생활 환경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18년에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 중 56.8%가 금융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중등학교라 답했고 초등학교에서는 고학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최윤정, 2018, p.22). 그러나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위해서는 습관의 형성과 태도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초등학생을 위한 금융교육에 대한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김재근·김태환, 2024; 김지훈, 2024; 박영석, 2024; 정수진·이바름, 2022).

그렇다면 향후 교육과정에서라도 교과 교육과정 내 금융 관련 내용 요소를 확대하여 금융교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교육과정을 둘러싼 현실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교육과정 개정 시기마다 개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 경감이다. 더불어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과목별 성취기준 수를 줄여 학습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과목 수나 학습 분량을 늘리는 것은 교육과정 개정이 추구하는 방향에 적합하지 않기에, 교과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하려면 다른 것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초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금융교육을 확대하던 방식, 즉 금융교육을 위한 별도의 단위 및 과목을 신설하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돈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돈 관리'부터 시작

경제교육과 달리 금융교육은 학문적 기반이 뚜렷한 영역이 아니기에 개념이나 내용 요소 간 위계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학습할 내용의 선후 관계는 분명 존재한다.

2022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금융교육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 요소를 모두 살펴보면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용돈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학생들은 3~4학년 때 사회 과목에서 자원의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의 의미를 이해하고, 5~6학년에서 학습하는 실과 과목에서 용돈 관리 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따라서 2022 개정 교육과정 내 사회와 실과 과목 간 내용 요소의 위계나 학습의 순서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러나 금융교육의 출발점이자 합리적 선택, 생산과 소비, 용돈 관리 학습에 필수적 기초가 되는 '돈에 대한 기본 이해'는 1~2학년의 통합 과정을 포함하여 어느 과목, 어느 학년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학생들은 익숙하게 돈을 사용하고 있기에 돈의 개념이나 역할 등은 학습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돈 사용을 익숙하게 함으로써 배우게 된 것은 돈의 개념이나 역할이 아니라 '거래 시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 자체일 것이다.

돈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교사들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내용 요소를 탐색한 김태환·김재근(2024)의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 요소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꼽았다. 돈의 개념과 돈의 가치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후의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김태환·김재근, 2024, pp.565-566).

최근의 교과 교육과정에서 돈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한 금융교육에서는 돈에 대한 이해를 중요한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희망에 대한 연구(박형준·한진수, 2018)를 살펴보면, 창의적 체험 활동과 방과후 학교 등에서 배운 금융교육 내용을 조사하는 질문에서 '돈의 가치와 돈 관리의 중요성'을 배웠다고 응답한 초등학생이 65.8%로 가장 많았다.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배웠다고 응답한 초등학생 15.6% 보다 4배 이상 높다.

교과 교육이 학교 교육의 전부는 아니기에, 교과 수업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 이는 상당히 이상적이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 등을 통해 누락되었거나 부족했던 부분이 메꾸어지고 있으니 학교 금융교육 전체를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 과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방과후 학교는 금융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없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금융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금융교육 관련 강좌 개설은 필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3. 저축 없이 '소비'에만 집중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나타난 금융교육의 또 다른 문제는 저축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 없이 소비에만 학습 내용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소비에 대한 학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초등학생의 경제생활은 소비생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학습 내용이 소비 및 소비 중심의 돈 관리에 중점을 두어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축은 초등학생들의 돈 관리에서 소비만큼 중요한 요소인데, 교육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용돈 관리를 배우는 과정에서 저축을 함께 학습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자원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인 성취기준의 특성 상 저축에 대한 학습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생의 경우, 용돈은 오직 소비하는 데 쓰고 저축은 부모님이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용돈 역시 간식을 사거나 갖고 싶은 물건을 사는 등 지출 규모가 작은 곳에만 사용하고 필수품이나 목돈이 필요한 물품은 부모님이 사주시기도 한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자칫 저축은 '중요한 것, 해야만 하는 것' 등 맹목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인식되기 쉽다.

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 자산 관리 방안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성취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저축의 의의나 구체적인 저축 방법 등에 관해서는 중학교에서도 학습할 기회가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저축에 관한 학습이 누락된 것은 아니니, 초등학교에서 저축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교육에서 '저축하기'만큼 습관 형성을 강조하는 학습 내용은 없을 것이다. 교사들도 이 점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저축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앞서 제시한 김태환·김재근(2024)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실천 중심의 돈 관리와 저축’도 초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금융교육 내용 요소로 꼽았다. 교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은 주어진 돈을 쓰는 것에는 매우 익숙하나 미래의 소비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비하여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은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시기에 형성된 돈 관리 습관은 중고등학생 시기와 성인기에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기에 초등학교급에서 돈 관리를 위한 핵심 방법으로서 저축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돼지 저금통에 의무적으로 돈을 넣도록 하는 저축 교육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저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목표를 설명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저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김태환·김재근, 2024, p.567).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저축 교육은 학생들도 원하는 듯 보인다. 초등학생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정수진·이바름(2022)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돈을 모으는 것에 관한 내용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에 대해 알고 싶은 내용 여섯 가지 중, 쓰는 것에 관한 항목인 ‘돈 잘 쓰는 방법’과 ‘신용카드나 전자화폐 이용 방법’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26.4%와 24.0%였다. 그러나 모으는 것에 관한 항목인 ‘돈 잘 모으는 방법’과 ‘미래나의 생활비 규모’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각각 40.3%와 47.1%로 높았다(정수진·이바름, 2022, p.17).

저축은 금융교육 내용 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저축은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필수 내용으로 교사들이 꼽은 요소이기도 하며, 학생들이 배우길 원하는 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따라서 지금의 소비 중심의 내용 구성을 개선하여 합리적 소비와 저축을 함께 강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방향 탐색

살펴본 바와 같이, 초등학교 금융교육은 교과를 통한 교육 시간의 절대적 부족을 필두로 하여 돈에 대한 기본 이해 없이 돈 관리부터 시작하는 내용 요소 제시의 비체계성, 저축에 대한 언급 없는 소비 중심의 내용 구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모두 필요하다.

1. ‘돈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저축’을 포함하는 내용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돈에 대한 기본 이해’와 ‘저축’에 관한 문제는 금융교육 내용 요소 구성 및 내용 요소 제시 방식의 비체계성에 관한 것인 만큼 교과 교육과정의 개선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일찍부터 학교 금융교육을 도입한 호주나 영국에서는 우리와 달리 ‘돈’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에서 금융교육을 시작하고 있으며 저축에 대한 강조 역시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호주의 경우 초등학교 금융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지식과 이해’ 영역과 ‘역량’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내용을 학년별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지식과 이해’ 영역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돈을 버는 방법, 저축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2, 4, 6학년에서 반복·심화하고 있다. 6학년의 경우, 저축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현재 소비 또는 미래 소비’라는 표현을 통해 소비와 저축을 상호 연결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표 7> 참조).

<표 7> 호주 ‘금융교육표준’의 예-지식과 이해

	2학년	4학년	6학년
지 식 과 이 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의 화폐에는 동전과 지폐가 있음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이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 거래에는 동전과 지폐 이외의 것도 포함됨을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돈은 희소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소득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에서 일의 역할을 설명하고 돈을 받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돈을 받지 않는 일이 공동체에 가지는 가치를 탐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요에 따라 돈을 저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에 저축하면 어떻게 이자를 받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계 소득을 현재 소비 또는 미래 소비에 활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자료: MCEECDYA (2011)

영국에서도 초등학교에서는 금융교육의 시작점을 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에 맞추었으며, 저축에 대한 강조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학교 금융교육 중핵 과

목은 PSHE(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education)이며, 금융교육은 주로 ‘경제적 웰빙: 돈’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KS 1에서 KS 5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내용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급에 해당하는 것은 KS 1단계와 KS 2단계이다. 내용 제시 방식에서 눈에 띄는 것은 KS 1단계의 L11과 KS 2단계의 L18에서 저축과 지출을 한 쌍으로 제시하여 돈의 사용을 저축과 지출을 포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표 8> 참조).

<표 8> 영국 ‘PSHE’ 과목의 금융 관련 내용

단계	내용
KS 1	학생들은……을 배운다. L10. 돈이 무엇인지, 돈이 들어오는 형태, 다양한 돈의 출처 L11. 돈을 저축하고 지출하는 방식에 관한 사람들의 상이한 결정 L12. 필요(need)와 요구(want)의 차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L13. 돈 관리의 필요, 다양한 돈 관리 방법
KS 2	학생들은……을 배운다. L17. 다양한 지불 방법과 지불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L18. 저축과 지출에 관한 사람들의 상이한 태도를 인식, 사람들에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비용 대비 가치를 크게 만드는 이 무엇인지 L19. 지출이 다른 사람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예. 공정무역, 일회용 플라스틱의 구입, 기부) L20. 사람들은 우선 순위, 필요, 요구 등에 따라 지출을 결정함 L21. 돈에 관해 기록하는 다양한 방식 L22. 돈과 관련한 위험(얻을 수도, 잃을 수도, 도난당할 수도 있음)과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L23. 도박의 위험, 도박 관련 활동에서 돈을 얻거나 잃는 다양한 방식 및 그것이 건강, 웰빙, 미래의 열망에 미치는 영향 L24. 돈이 사람들의 기분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을 식별하는 것

자료: PSHE Association(2020)

미국에서는 경제교육협의회(CEE)와 점프스타트(JumpStart Coalition)가 2021년에 발표한, K-12 교육과정을 위한 단일한 금융교육 표준인 ‘개인금융 교육을 위한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을 통해 금융교육을 체계적으

로 실시하고 있다. 2024년 경제교육협의회가 발표한 학교 경제·금융교육 총조사(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제외: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버몬트, 워싱턴)에서 금융교육표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CEE, 2024, p.10). 해당 표준안은 ‘소득, 소비, 저축, 신용, 투자, 보험’ 등을 핵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저축’을 별도의 장으로 구분하여 지출만큼 비중있게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표 9> 미국 ‘개인금융 교육을 위한 국가표준’의 주제

주제					
소득의 획득 (Earning Income)	지출 (Spending)	저축 (Saving)	투자 (Investing)	신용 관리 (Managing Credit)	위험 관리 (Managing Risk)

자료: CEE, JumpStart Coalition(2021)

초등학교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완결된 형태의 금융교육을 실행할 수는 없지만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교과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도 내용 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교육과정에서는 3~4학년에서 ‘합리적 선택과 소비’를 학습하기 전에 1~2학년의 통합 과정에서 돈의 개념과 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추가하고, ‘소비와 용돈 관리’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축에 대한 학습도 함께 강조될 수 있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의 확장이 현실적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교육을 위한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초등학교 급에서 교과 교육을 통한 금융교육의 양적 확장은 한계가 있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거듭 밝힌 것처럼 창의적 체험 활동을 활용한 금융교육은 학교나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나 교사의 선택을 기대한다면, 금융교육의 실행을 용이하게 만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금융교육 실행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금융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금융교육이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아 금융감독원은 2010년에 초·중·고 금융교육표준(이하 금감원 표준안)을 개발(김정호 외, 2010)하였다. 이후 2020년에는 교육 환경 및 금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판(이소연 외, 2020)을 발간하였다. 금융교육에 관한 국가 교육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 표준안은 학교 현장에 금융교육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었고, 교사들이 금융교육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금감원 표준안이 초등학교급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 같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가 경험한 금감원 표준안 활용의 어려움을 분석한 김지훈의 연구(2024)에 따르면, 단일한 성취기준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초등학생은 학년별로 발달 수준의 차이가 큰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초등학교급을 하나로 묶어 성취기준을 제시한 점을 ‘불친절하다’고 표현하였다(김지훈, 2024, pp.26).

초등학교는 6년제이기에 3년제인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비해 학년에 따른 학생들의 발달 수준 차이가 큰 편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교육과정은 1~2학년, 3~4학년, 5~6학년으로 구분하여 내용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표준안에는 초등학교급이 단일한 집단으로 설정되었기에 교육 내용과 방식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였으나, 어느 학년에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알 수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교육 실행의 용이성을 높이는 우선 과제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금융교육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1~2학년, 3~4학년, 5~6학년의 3단계 구분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저학년과 고학년의 2단계 구분이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금융교육 기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연간 활동 계획 예시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통해 의무 이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기에,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 전체를 금융교육에 할애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행 책자에서 해당 지역으로 처음 여행을 가는 이들을 위해 일정별, 테마별 여행 계획 예시를 제공하듯 시수별이나 주제별로 금융교육 기준을 어떻게 조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다양한 예시를 제공한다면, 금융교육이 익숙하지 않은 교사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금융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학년별 기준과 시수별 및 주제별 금융교육 기준의 조합 예시의 마련은 교사들이 금융교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 조건이며, 이를 통해 교수학습 지도안이나 수업 자료 등의 개발과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교 금융교육은 절대적 시간 부족, 내용 제시의 체계성 부족, 소비 중심의 내용 구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 중 내용 제시의 비체계성과 소비에 치우친 내용 구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돈에 대한 기본 이해’가 가능하도록 관련 성취기준을 추가하고, ‘저축과 소비’를 함께 강조하는 방향으로 관련 성취기준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금융교육의 용이성을 높여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한 금융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세분화된 금융교육 기준 마련 및 시수별·주제별 기준 조합의 다양한 예시 제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향이 초등학교 금융교육의 확산 및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이해도 증진이라는 전제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서 관련 강좌 개설, 연수 제공, 학습 공동체 지원 등 초등교사들이 금융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22a),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 고시,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2022.12.22.).
- _____ (2022b),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제2022-33호(별책 7).
- _____ (2022c), 2022 개정 실과(기술·가정)/정보과 교육과정, 제2022-33호(별책 10).
- _____ (2022d),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제2022-33호(별책 1).
- 김정호·권유진·김경모·박영석·차경욱·천규승·한경동(201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발연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20-22.
- 김지훈(2024), 초등교사가 경험한 금융교육 표준안 활용의 어려움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금융교육연구, 9(1), 19-40.
- 김태환·김재근(2024), 초등 사회과 금융교육 내용 요소 탐색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4), 559-577.
- 박영석(2024), 초등학교 사회과와 실과 교육과정의 금융교육 내용 분석, 경제교육연구, 31(2), 73-95.
- 박형준(2017), 한국과 미국의 학교 금융교육과정 비교, 교육연구, 71, 83-107.
- 박형준·한진수(2018), 금융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경험과 희망, 경제교육연구, 25(2), 27-60.
- 이림(2024), 우리나라 범교과 학습 관련 쟁점 분석, 초등교육연구, 37(3), 1-24.
- 이소연(2018), 교육과정 변천에 따른 사회과 금융교육 관련 내용 분석, 교육연구, 71, 49-65.
- 이소연·권유진·김재근·김태환·한진수·박형준(2020), 초·중·고 금융교육 표준안 개정 연구, 금융감독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 2020-2.
- 정수진·이바름(2022), 초등학생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태도, 금융교육연구, 7, 1-30.
- 최윤정(2018), 초·중·고등학교 금융교육 현황 인식 및 방향성 제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사회과교육, 57(3), 15-33.
- 한진수(2017), 왜 학교 금융교육이어야 하는가?, 금융교육연구, 2, 25-49.
- Amagir, A., Groot, W., Maassen van den Brink, H., and Wilschut, A. (2020), Financial Literacy of High School Students in the Netherlands: Knowledge, Attitudes, Self-efficacy, and Behavior,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Education*, 34, <https://doi.org/10.1016/j.iree.2020.100185>.

- CEE (2024), Survey of the states: Economic and personal finance education in our nation's school, <https://www.councilforeconed.org/wp-content/uploads/survey-of-states-2024.pdf>.
- CEE, Jump\$tart Coalition (2021), National Standards for Personal Financial Education, <https://www.councilforeconed.org/wp-content/uploads/2021/10/2021-National-Standards-for-Personal-Financial-Education.pdf>.
- MCEECDYA (2011), National Consumer and Financial Literacy Framework, <https://files.eric.ed.gov/fulltext/ED528784.pdf>.
- Novitasari, D., Juliana, Asbari, M., and Purwanto, A. (2021), The Effect of Financial Literacy, Parents' Social Economic and Student Lifestyle on Students Personal Financial Management, *Economic Education Analysis Journal*, 522-531.
- OECD (2005), Recommendation on Principles and Good Practices for Financial Education and Awareness: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http://www.oecd.org/finance/financial-education/35108560.pdf>.
- ____ (2014), *Financial Education for Youth: The Role of School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174825-en>.
- ____ (2024), *PISA 2022 Results (Volume IV): How Financially Smart Are Students?*,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a849c2a-en>.
- PSHE Association (2020), PSHE Association Programme of Study for PSHE Education (Key stages 1-5), [https://fs.hubspotusercontent00.net/hubfs/20248256/Programme%20of%20Study/PSHE%20Association%20Programme%20of%20Study%20for%20PSHE%20Education%20\(Key%20stages%201%E2%80%935\)%2c%20Jan%202020.pdf?hsCtaTracking=d718fa8f-77a8-445b-a64e-bb10ca9a52d8%7C90ef65f6-90ab-4e84-af7b-92884c142b27](https://fs.hubspotusercontent00.net/hubfs/20248256/Programme%20of%20Study/PSHE%20Association%20Programme%20of%20Study%20for%20PSHE%20Education%20(Key%20stages%201%E2%80%935)%2c%20Jan%202020.pdf?hsCtaTracking=d718fa8f-77a8-445b-a64e-bb10ca9a52d8%7C90ef65f6-90ab-4e84-af7b-92884c142b27), 인터넷 자료 (10. 22. 접속).

<Abstract>

Exploratory Study to Establish the Direction of Financi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So Yeon Lee*

This study analyzed the revised 2022 curriculum to explor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elementary school financial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re are three major problems with elementary school financial education. First, there is an absolute lack of time for financial education. Second, students learn 'consumption and allowance management' without understanding the 'concept or role of money'. Third, there is no content on 'savings' and the focus is on 'consump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s, this study proposed to add an achievement standard aimed at 'understanding the concept and role of money' and to revise the related achievement standards in the direction of emphasizing 'savings and consumption' together. In addition, we explored ways to increase the ease of implementing financial education in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ies. It was suggested that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by grade level considering the developmental level of students and that examples of how financial education standards can be combined in various ways by time period and subject should be provided.

Key words: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Financial education in school, Financial literacy, 2022 revised curriculum

원고접수: 2024년 11월 10일 심사일: 2024년 11월 11일 ~ 2024년 12월 09일
게재확정: 2024년 12월 10일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flys3@jnue.kr).